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3월 13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84장(통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 “출 26:9-14”(구약p.121) / 가족 중에서
- 말 씀 / “성소의 휘장”/인도자

성소는 네 개의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휘장’이라고 불리는 이 막은 가는 베실로 짠 고운 막과 염소 털로 만든 덮막 그리고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막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겹 덮개의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휘장들은 각각 그 재료와 무늬 위치가 달라서 각각이 뜻하는 영적 의미 역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의 휘장에는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의 백성에게 자기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 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휘장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막을 덮는 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리워져 있음을 뜻합니다.

네 가지의 정교한 막들은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과 그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예배 의식을 일반인의 눈으로부터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 안의 영광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낄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그 영광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숨겨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며, 따라서 결코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1:7)

2.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계시됩니다.

네 개의 막 중에서 제일 안쪽에 덮여 있는 막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고 금실로 그룹이 수 놓여 있는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막이었습니다. 이 막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거칠고 질기며 화려하지도 않은 염소 털과 숫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막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단과 그로 인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와 깊숙한 교제 관계를 형성한다면 그러한 난관들이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막이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는 아픔도 겪어야 하며 세상 습관을 단절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다가오는 조롱과 멸시의 고통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란을 겪어야 하지만 그런 고통을 인내하고 승리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눈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이 주어지며 우리가 끊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침과 함께 오히려 또 다른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낙심치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바로 그 너머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빛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막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보호와 축복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막 안에는 언제나 평화와 고요 그리고 밝음만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도 없으며 대적의 위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변적입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고통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아직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비록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로 들어가는 길이며 아무런 위험도 없는 영원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기 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송 / 새286장(통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주기도문 / 다같이

*광고 :

1. 금주 수요일(3월 16일)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로 드려드립니다.
2. 교우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모든 공무원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소독 등의 생활화와 많은 사람과의 접촉 및 모임 자체에 힘쓰며, 3월에도 거리 두기 삶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